

이연정 무용단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10개 협회 참여

공연 29~30일 수완호수공원·전시 11월1~10일 예총회관

광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한 데 모여 펼치는 예술의 향연. ‘제10회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이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린다.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회장 임원식)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광주예총 10개 협회가 공연, 체험, 전시 등을 펼치는 종합 예술 축제로, 올해는 공연과 전시 2개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공연 아트 페스티벌’은 29~30일 오후 6시부터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정순기 광주예총 부회장이 총감독을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화, 음악 6개 단체와 다양한 초청 예술가들이 20여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첫날 여는 공연은 오후 6시 광주국악협회의 길놀이 공연으로 마련된다. 이어 가수 진주아, 이흥수 마술팀이 초청공연을 선보이고, 광주연극협회

가 80~90년대 유행가를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 ‘8090 젊음의 행진’을 무대에 올린다.

본공연은 문인협회가 시 ‘천상의 목소리로 시를 꽃피우다’를 낭송하며 막을 올린다. 국악협회는 ‘퓨전 난타-아름다운 동행’을 비롯해 이은하 등 국악인 5명의 ‘만도민요’, ‘새타령’, ‘진도아리랑’ 등 민요 공연을 선보이며, 무용협회는 발레 ‘아를르의 여인’과 한국무용 ‘흐르는듯이, 하염없이’ (이연정 무용단), 현대무용 ‘DREAM’ (드림 무용단)을 공연한다.

영화협회는 세계 최초의 영화로 알려진 루미에르 형제의 ‘기차의 도착’과 ‘뤼미에르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 2편을 상영하고 소프라노 노연선 등 7명의 ‘왕의 남자’, ‘마선’ 등 영화 OST 연주 무대를 마련한다. 또 광주음악협회는 ‘쌍투스 중창단’, ‘사랑의부부합창단’의 음악 공연을 준비했으며, 연예인협회는 트로트 아이돌 ‘후니용이’와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된 재즈 밴드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를 무대에 올린다.

다음 날 무대는 오후 6시부터 진스 어린이발레단의 발레 ‘지젤’ 중 ‘마을채녀’ 공연으로 시작한다. 연극협회 회원들의 마당극 ‘행파야 봉사는 댕다’, 무용협회의 창작무용 ‘허가 판’, 비상무용단의 ‘Look Away’ 등 공연도 만나볼 수 있으며, 서울시 뮤지컬단이 선보이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초청 무대도 마련된다. 이날은 합승우 소리꾼, 무용수 백미성·이정숙, 서구여성합창단, 광산구립합창단도 공연을 갖는다. 공연 마지막 순서는 가수 손빈의 초청 공연, 여성 록밴드 ‘워킹 에프터 유’의 음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미술, 사진, 문학, 건축 부문에서 2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프로그램은 11월 1~10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예총회관에서 진행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현대무용단의 공연 모습



80년 5월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과 함께

‘광주현대무용단’이 창작무용 ‘5월, 무등의 Fantasy’를 오는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초연한다.

이번 작품은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기를 미리 맞이하고자 제작된 무용 공연으로,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무용수와 관객이 80년 광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작품은 현대무용의 퍼포먼스에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결합한 융복합 공연으로 제작됐다.

작품은 5개 장면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도시의 새벽’, ‘탄압’, ‘무등판타지’, ‘도원경’, ‘꿈꾸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줄거리에는 현대의 한 청년이 과거의 광주로 돌아가 당시 시민들이 만났던 대동세상을 경험하고, 희망적인 미

‘5월, 무등의 Fantasy’

광주현대무용단·박상화 협업

11월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래를 그리는 과정이 담겼다.

이번 작품은 5·18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로 다른 5·18 관련 작품들과 다르게 밝은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미디어아트를 통해 무등산의 4계절과 주상절리 등 풍경을 보여주고, 사진 촬영된 영상을 통해 무대의 무용수와 영상 속 무용수가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안무는 임지형 광주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이 맡았다. 한국무용예술학회 이사, 조선대 공연예술

무용과 교수로도 활동 중인 임 감독은 춤 평론가상, GITS KOREA 무용예술상, 광주현대무용협회 코파나스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현대무용단은 1990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현대무용 전공자들로 창단한 단체로,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3회 수상했다. 이날은 김유진과 김민경이 주역 무용수로 출연하며, 김진아·홍유나·박성훈 등 17명의 무용수가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임 감독은 “시민들과 무용수가 하나 되어 무용의 예술적인 향기를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특히 미래 5·18을 이끌어갈 젊은 이들이 이번 무대를 통해 5·18을 새롭게 받아들여줄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무로.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VR로 체험하는 亞문화유산 불탑

‘아시아 스투파 로드 : 탁티바히’ 11월 24일까지 ACC

한자어인 ‘탑’ (塔)은 영어로는 ‘스투파’ (Stupa)로 표기된다. 탑은 고대 인도 시대부터 있었으나 석가모니 부처 입적 이후 부처의 진신사리를 보관하면서 지금의 종교적 의미인 탑으로 정착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기원 전후 현재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인 간다라 지역에 전파된다. 이후 그리스 문명과 만나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이른다. 오늘날 아시아 국가에는 과거 불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스투파가 산재한다. 이러한 불탑(佛塔)을 종적, 횡적으로 연결하면 전래와 융합을 반복하며 확산됐던 문명 교류의 실상이 드러난다. 불탑이 갔던 길을 이른바 ‘스투파 로드’라고 부른다.

아시아 스투파 로드를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이기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전당 예술극장 특별 부스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스투파 로드 : 탁티바히’가 그것.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체험전은 198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파키스탄 탁티바히 불탑을 3D 스캔 데이터로 활용해 창조한 콘텐츠다. 초기 불교 미술과 건축 양식을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작업한 이번 작품은 화려



한 옛 모습이 인상적이다.

2천년 간의 외침과 풍파로 탁티바히 불탑의 과거의 모습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영국학자 피시 브라운의 복원도를 바탕으로 비슷한 시기 만들어진 탁티바히 인근의 불탑을 참고해 국내 불탑 전문가 천득영 전남대 교수와 폐사와의 간다라 문화전문가인 나와즈딘 박사의 자문을 토대로 복원이 이뤄졌다.

한편 이에 앞서 ACC 아시아문화연구소는 2014년 아시아 불교문화 발상지인 아시아 탑을 조사, 연구했다. 3차원 스캔 기술을 활용해 인도 산치 대탑,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중국 당나라 소안탑과 응현탑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대불, 파키스탄 탁티바히 사원탑 7개와 국내 불국사 석가탑 등 8개 불탑을 조사 기록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대 ‘호심미술관’ 개관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호심미술관이 공식 개관했다.(사진)

광주대는 최근 학교 크기관 1층에 마련된 호심미술관이 광주시로부터 미술관 등 록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호심미술관은 전시회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호심미술관을 통해 교수와 학생의 특별기획전을 지원, 문화예술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술연구와 교육활동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호심미술관은 조명과 향은, 향설설비는 물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첨단 영상시설을 갖추고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휴관이다.

현재 미술관에서는 패션·주요리학부 교수 등을 비롯해 학계, 작가 등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광주대 졸업생들이 참여한 ‘진열 금속 조형회 동문전’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대 호심미술관 최준호 관장은 “제도권으로 진입한 호심미술관이 대학 미술 문화의 가치창출을 선도하고, 학생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미래지향 생태미술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